

# 완도군 5대 현안사업 조기 실현 행정력 ‘초집중’

민선 8기 4년차...공약 마무리 중점

SOC 구축·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이행률 100%·추진율 82% 달성

완도군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5대 현안사업 조기 실현과 공약 마무리의 전환점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은 주민 배심위원을 거쳐 총 78건이 확정됐으며 연차별 세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율은

82%로, 이행률은 100%에 달한다.

2023년에는 ▲전 군민 버스 무료 운임제 ▲여객선 야간 운항 확대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제 등 복지 공약이 조기에 이행됐으며 군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 체육대회와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을 연이어 개최하며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 공약을 완수했다.

두 대회는 총 1만4천여명이 참가한 지역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 숙박, 교통, 관광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해양치유산업은 민선 7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약으로 민선 8기 들어 결실을 맺고 있다.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정식 개관하며 해양기후와 해조류, 해수, 갯벌 등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만명이 넘게 방문했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 스포츠 재활 센터 및 리조트 유치 등 치유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1년은 ▲국립해양수산물

물관 건립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의 연도·연륙교 구축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SOC 및 5대 사업 조기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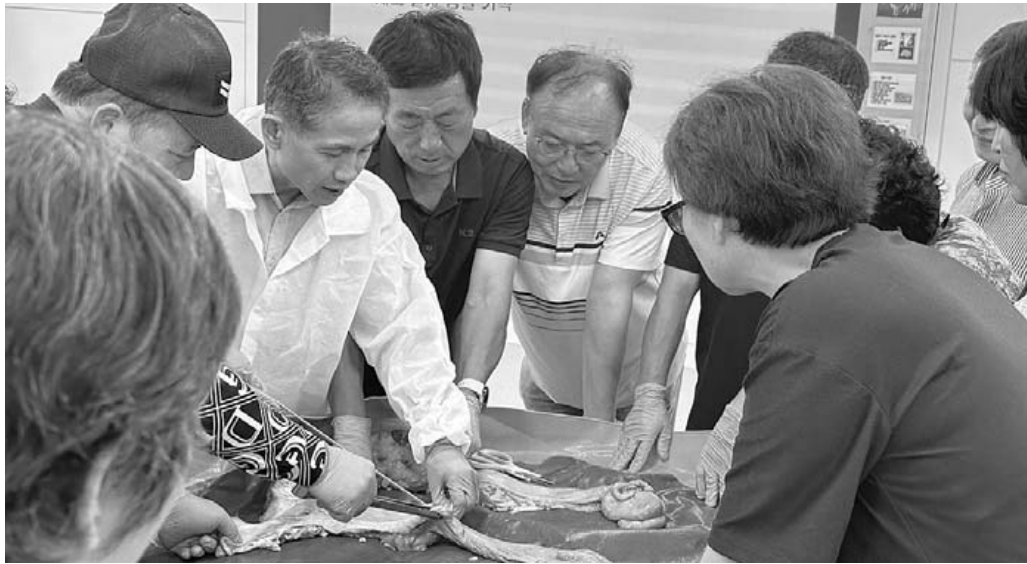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과도 연계된 핵심 과제로 군은 사업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남도, 국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공약 사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 의견을 반영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전국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실천 중심의 정책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에 있어 전국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성과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군정 운영의 이정표”라며 “마지막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군민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디지털농업대학 스마트한우과정 수강생들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수정 실습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디지털농업대학 실습 중심 교육 주목

스마트한우·바이오발효·힐링팜 운영

실무·이론 병행...농업 경쟁력 강화

“실제 소의 생식기를 활용해 인공수정 실습을 해본다는 게 뜻깊었어요.”

한 교육생의 말처럼 강진군 디지털농업대학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실습 중심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농업대학은 ‘스마트 한우’, ‘바이오발효’, ‘힐링팜’ 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한우과정은 번식·사양 관리부터 재무 관리, 스마트축산 기술까지 다루며, 특히 인공수정 실습이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에는 AI 기반 자동 사료공급 시스템 실증농가와 메탄저감 사료 제조 공장을 견학해 첨단 축산 기술을 배우게 된다.

바이오발효과정은 막걸리·젓갈·고추장을 직접 만들며 미생물 작용, 숙성 관리, 위생 설비까지 배우는 실천형 교육이다.

한 교육생은 “감에탄 의존하던 발효가 과학적으로 다가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힐링팜과정은 정원 조성, 실내 식물 재배, 토 피어리·테라리움 제작 등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에는 꽃축제와 연계한 현장 학습도 추진해 농업과 문화 자원의 융합을 시도했다.

디지털농업대학은 연중 운영되며 현장 실습과 실무형 이론 교육을 병행해 농업인 고령화,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 위기에 대응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왜 배워야 하나’보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 “찾은 고장 불편”...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재정비 시급

개관 13년 시설 노후화 제기능 상실

市 “예산 확보해 단계적 리뉴얼 추진”

개관 13년 차를 맞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사진)이 시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해 전면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삼학도 근린공원 내 부지 7천130㎡, 연면적 3천515㎡ 규모로 총사업비 117억원(국비 65억원·도비 2억원·시비 50억원)을 들여 2013년 2월 개관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상설 체험시설 43종과 4D 입체영상관 등을 갖추고 2020년에는 ‘VR 해저탐험 라이더’를, 올해는 ‘용오름’을 추가했으며 하반기에는 ‘바다지킴이’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13년 가까이 교체 없이 운영된 전시물 상당수는 노후화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형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관의 노후화는 청소년 문화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0년 도입된 ‘VR 해저탐험 라이더’ 체험시설도 찾은 고장으로 방문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목포시는 체험시설물 특성상 아이들이 직접 만지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장이 잦고, 설치 후 장기간이 지나 제작업체가 사라져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원거리 수리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도 크다.

예산 확보 또한 쉽지 않아 2025년 본예산에 신청한 4종 리뉴얼 예산(1억2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 규모 ‘용오름’만 반영됐으며 추경을 통해 ‘바다지킴이’ 설치비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한 목포시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학관은 단순 전시관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고장으로 운영이 어려운 체험시설은 교보재·모형 등을 활용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수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신규 영상 콘텐츠를 임대해 4D 상영관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도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해 리뉴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25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농어촌 수도’ 비전 실현 박차

내년도 신규시책 257건 발굴

AI·스마트농업·관광·복지 등

해남군이 ‘농어촌수도’ 비전 실현을 위해 2026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25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A.C.E(AI·Agri, Culture, Energy)’를 주제로 2026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를 개최한 가운데 신성장동력·미래농어업·관광문화휴양·복지·SOC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솔라시도 국제학교 설립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과영상강 생태 복원 ▲AI·스마트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사업 17건이 포함됐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 개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해남미소 ‘해뜰배송’ 1일 유통망 구축 등 미래농어업 분야 57건도

발굴했다.

이 밖에 ▲두륜산권역 웰니스파크 ▲마한·정원 축제 개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와 국립스포츠재활센터 조성 등 관광·문화·휴양 분야 44건, 인구·보건·복지4건, SOC 8건이 제시됐다.

해남군은 자문단 의견 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과제 우선순위를 정한 후 10월 중 시책이 확정되면 2026년 본예산과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8기 마무리 단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오래 기간 준비해 온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함평천지물 단호박 20% 할인 기획전

29일까지...적립·쿠폰 제공도

함평군은 20일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물에서 미니 단호박 기획전 ‘함평 보우장 와우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함평산 미니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달콤한 단호박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기간 기획전에서 단호박 구매 시 1인당 최대 5개, 5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결제금액 5% 적립 ▲신규 회원 가입 시 5천원 쿠폰 지급 ▲구매 후기 작성 시 적립금 제공 ▲베스트 리뷰 선정 고객에게 5천원 추가 적립 ▲무료배송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기획전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함평 단호박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평천지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 무안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군청·삼향읍 남약출장소 2곳

무안군은 20일 “군청 민원실, 삼향읍 남약출장소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 과 다문화가족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팔리판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한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7종으로 주민등록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

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다.

현재 무안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7곳 설치돼 있으며 군청 민원실, 삼향읍 남약출장소, 청계면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등 4곳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